

임실군청 SNS, 홍보 역할 '톡톡'

임실엔TV, '엄니! 왜불러' 막내공무원 열연 속 누적 조회수 145만 돌파

올해 새롭게 개편된 임실군청 SNS 채널이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가는데 전국적인 관광 홍보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임실군은 현재 공식 유튜브인 임실엔TV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총 4개 채널에 임실군 인구 전체 인구수(2만 6천여명)보다 많은 총 3만6,000여명의 독자를 확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들 채널의 성격과 구독자 성향, 적기의 군정 홍보 등 맞춤형 정보와 사계절 핵심 관광지 등을 집중적으로 게시하면서 높은 조회수와 댓글 등으로 큰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천만 관광역 유치'라는 임실군정의 최고의 목표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 보물 관광지로 급부상한 목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생태공원, 장미원 조성으로 새롭게 각광받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캠프와 야영, 힐링천국으로 탈바꿈한 왕의 숲 성수산, 반려동물의 성지 오수의견관광지 등을 집중 게시하면서 SNS의 홍보위력을 과시하

고 있다.

임실엔TV는 '강나루 엄니'로 잘 알려진 지역주민 이양임씨와 개그우먼 옥삼이의 '엄마와 딸' 케미로 재미와 웃음을 안겨주며 조회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인기코너인 '엄니! 같이가'는 올해부터 군청 홍보팀 막내공무원인 안중선씨가 합류하면서 '엄니! 왜불러'로 개편, '엄니시즈'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최근 게시된 '밤 잘 해주는 강나루 엄니 따라 임실 우시장 구경', '비와도 엄니랑 성수산 자연휴양림에서 감성캠핑' 에피소드는 각 조회수 2.1만 회와 1.3만회에 달하며 핫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임실엔TV는 누적 조회수가 145만회를 돌파하는 등 임실군의 대외적 이미지와 주요 관광지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에는 홍보팀 막내 공무원이 직접 연출하고 제작하는 '막! 여기입실'을 신설, 막내가 '막'가서 임

실의 다양한 매력을 짧은영상을 통해 빠르게 전달하는 '숏폼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축제에 방문했던 가수 이찬원, 김희재의 팬덤영상, 꽃여행지 추천영상, 임실N치즈빙어빵 제작 영상 등 임실군 관광홍보의 '맛깔난 양념'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같은 영상에 힘입어 임실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구독자들의 관심 댓글이 이어졌다. 댓글에는 "임실은 경기도 좋고 치즈, 한우도 유명하고 가족들 여행지로 좋을 것 같아요." 등 콘텐츠에 높은 호응을 보였다.

또한 페이스북 총 조회수도 11만 6,716회, 인스타그램 9만4,984회, 카카오톡 3만3,259회 등 군정 및 관광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을 알리고 군정을 홍보하는 데에 SNS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핵심 관광지를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해 천만관광 임실실현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지난 5일 풍산면 산울림센터에서 풍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순창군, 풍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준공식

주민 등 150여명 참석

순창군은 지난 5일 풍산면 산울림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풍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신정기 순창군의회 의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산 농악한마당패의 풍물놀이와 산울림산타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풍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면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교육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리더 교육·활동가 양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풍산면이 선정된 이후, 2024년까지 총사업비 39억 8,800만원 투입돼 산울림센터, 다목적야외운동장, 메아리길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됐으며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됐다.

특히, 이번에 조성된 산울림센터는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유카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작은도서관, 지역 문화 예술 동아리 회원들의 전용공간으로 활용될 다목적강당 등으로 구성된 영빌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풍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신 임춘기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올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회

최경식 시장 "공약사업·주요 역점사업 추진 차질없이"

남원시 최경식 시장은 지난달 29일부터 6월 5일 사이 3일간, 실·국장과 각 부서장, 팀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부서별 업무계획 공유를 통한 하반기 역점사업의 추진 방향 및 역점사업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올 상반기 주요 성과로 △제94회 춘향제 성공 개최 △민선8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홀 서남대 남원캠퍼스 부지매입 완료 △청년농촌보급지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90억원) △관촌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확정(200억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2년 연속 선정 등이 보고됐다.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로 △지역 협력 제고를 위한 10만 생활인구 유치 △2024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및 10월 문화의 달 성공 개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공모 대응 △한파우 아트밸리 주요도입시설 실시설계 △공공산후조리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조기 착공 △빈집 활용 귀농귀촌인 주거 공간 제공 등의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하반기는 민선8기 중반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정 비전 실현과 공약사업을 비롯한 주요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정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 자부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4회 순창고추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

스포츠 산업의 선두 주자 순창군이 지난 2월에 이어 다시 한번 대규모 유소년 야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2,000여 명의 선수단과 가족들의 방문이 예상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4회 순창고추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대한유소년야구연맹(회장 이상근)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이 공동 후원하며, 이날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팔덕다용도구장 등 7개 구장에서 치러진다.

유소년 야구대회는 서울, 경기, 세종,

대전 등 전국의 유소년야구단 80개 팀이 출전하며, 대회 기간 동안 2,000여 명이 넘는 선수단과 부모들이 순창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대다수의 관내 숙박업소들은 만실을 기록했으며, 음식점 및 카페 등도 예약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매년 세 차례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연휴기간을 이용해 유소년 야구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리에는 야구 유니폼을 입은 선수단으로 활기가 넘치고, 소상공인들은 대회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하반기 귀농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남원시, 7월 3일까지

남원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인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지난 6월 3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로 경종 및 축산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하며, 주택구입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로 주택구입 및 신축 등을 대출금리 연 1.5%(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관내 농촌지역 전일 예정자인 귀농 희망자도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영농 및 귀농 교육 시간은 기존 100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진행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운영

임실군이 가정에서 먹다 남은 폐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수질, 토양 등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전용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실군 관내 폐의약품 수거함은 보건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읍·면사무소, 경로당 등에 총 88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폐의약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 땅에 매립되거나 하수에 배출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동·식물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만큼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수거가 필요하다.

분리수거 방법은 알약을 포장지를 제거하여 알약만 모아서 배출하고, 가루약은 포장지째로 배출한다. 물약 종류는 새지 않도록 밀봉 후 배출하고, 연고·흡입제 등은 걸 포장지만 제거 후 특수 용기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의약품, 소독제 등은 수거 대상이 아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제2기 군민 소통혁신 추진단 발대식

순창군은 지난 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민과의 대표 소통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민소통혁신추진단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은 민선8기 5대 군정목표 중 하나인 '군민화합' 실현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11개 읍·면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해 4월에 처음 1기가 구성돼 임기 1년을 마치고 올해 새롭게 2기를 맞이했다.

2기 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군정발전예정이 있는 군민을 중심으로 17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은 임기 1년 동안 주민들의 숨어있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해 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최영일 군수가 직접 추진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